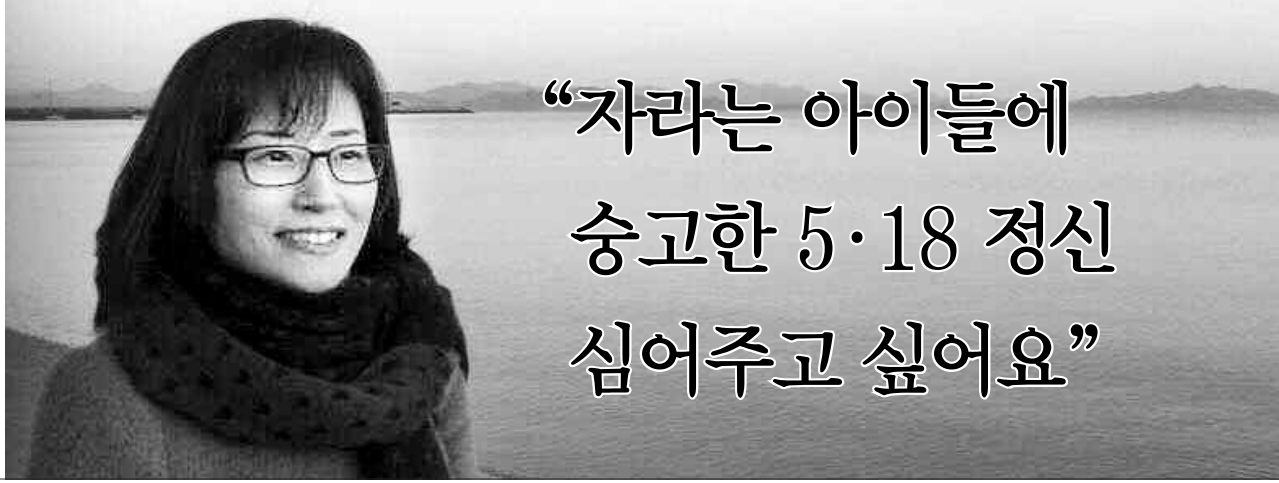




‘우리들의 오월 뉴스’ 동화작가 안오일씨



“자라는 아이들에 송고한 5·18 정신 심어주고 싶어요”

발포명령자·헬기사격 등 진상 규명되지 않는 상황 ... “지역 작가로 의무감 컸어요”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동화를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동화가 몇 권 되지 않아 광주에 살고 있는 작가로서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오월을 소재로 한 동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목포 출신 안오일(사진) 동화작가가 펴낸 ‘우리들의 오월 뉴스’는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학살의 진상과 발포명령, 그리고 헬기 기총사격 같은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화는 지난 역사를 현재화하고 이를 토대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최근 전화 통화에서 안 작가는 “막상 쓰려고 하니 많은 부담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다”며 “하지만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안 작가의 말에서 어떻게 하면 5·18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이 느껴졌다.

사실 소설이나 시에서는 광주의 오월

을 그린 수작들이 적지 않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임철우 ‘별날’, 김남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등은 5·18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대표 작품이다. 또한 황지우의 희곡 ‘오월의 신부’, 박효선 ‘금희의 오월’과 같은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수작들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5·18을 다룬 동화는 별로 없었다. 장르의 특성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 작가는 작품을 쓰면서 작정이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아이들 형식의 뉴스를 통해 당시의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방식이었다. 동화는 두 시대를 교차하며 지나버린 상흔

의 역사를 오늘날, 바로 우리의 역사로 돌아보게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섯 명이다. 아비한 방법으로 동주를 제치고 반장이 된 기철, 그런 기철을 미워하는 동주, 진실만을 보도하는 정의로운 기자가 꿈인 진아, 아빠가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인 혼혈아 노아, 역사에 무관심한 승범 등 다섯 명의 아이들은 광주로 역사 체험학습을 온다.

체험학습 결과물로 UCC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작장은 마찰을 겪는다. 이기심, 외면, 무관심 등 갈등은 과거 역사 속의 사람들과 닮아 있다. 그러다 점차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몰랐던 광주 오월의 진실을 알게 된다.

“노이라는 아이는 아프리카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지도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아이들은 제각기 지난 역사에서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를 토대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게 됩니다.”

안 작가는 5·18을 다룬 동화가 별로 없어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반장선거와 동영상 제작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서사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5·18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안 작가는 고등학교 때 예민한 활동을 하면서 문인의 꿈을 키웠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창작에 대한 꿈을 이어가고 있다. “창작은 황홀한 통증”이라는 말에서 힘들지만 좋아하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녀는 “문학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글쓰기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작가는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푸른문학상, 한국안데르센상, 눈높이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화책 ‘울창이 아빠’, ‘천하무적 왕눈이’, ‘이대로그 아닌 이대로’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인들 무대 많이 만들겠다”

이영에 무용협회광주시지회장
“시민대상 프로그램 만들어
사회무용 활성화에 노력”



“무용을 비롯해 순수예술을 하기에 참 힘든 시절, 중책을 맡아 어찌가 무겁습니다. 위촉돼 가는 무용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고 싶습니다. 무용협회는 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배 회원들과 힘을 합쳐 좋은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무용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사)한국무용협회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무용협회) 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에 전 광주시립무용단장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인과 중견 무용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4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 이 회장은 회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많은 무용인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용과 관련한 세미나 등을 통해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 협회 차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탐을 흘리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협회 회원 중에 좋은 무용 지도자들이 많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용이 어떤 건지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사회무용을 활성화하고 싶어요. 무용은 누구나 친해질 수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한 이 회장은 프리마돈나로, 지도자로, 안무가로 ‘광주 발레계’를 이끌어 온 주역 중 한명이다. 조선대 무용과 1학년 때부터 광주시립무용단원으로 활동한 이 회장은 무용단 장단 작품인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오데트’ 역을 맡아 열연했고, 이후 ‘심청’ 등 클래식과 창작을 아우르는 수많은 작품에서 주역으로 출연했다.

이후 광주시립무용단장을 6년 동안 이끌었던 그녀는 ‘신데렐라’, ‘고집쟁이’ 등 초연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무용단의 역량을 키워 왔다. 이론 공부도 놓치지 않았다. 세종대학교 무용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광주 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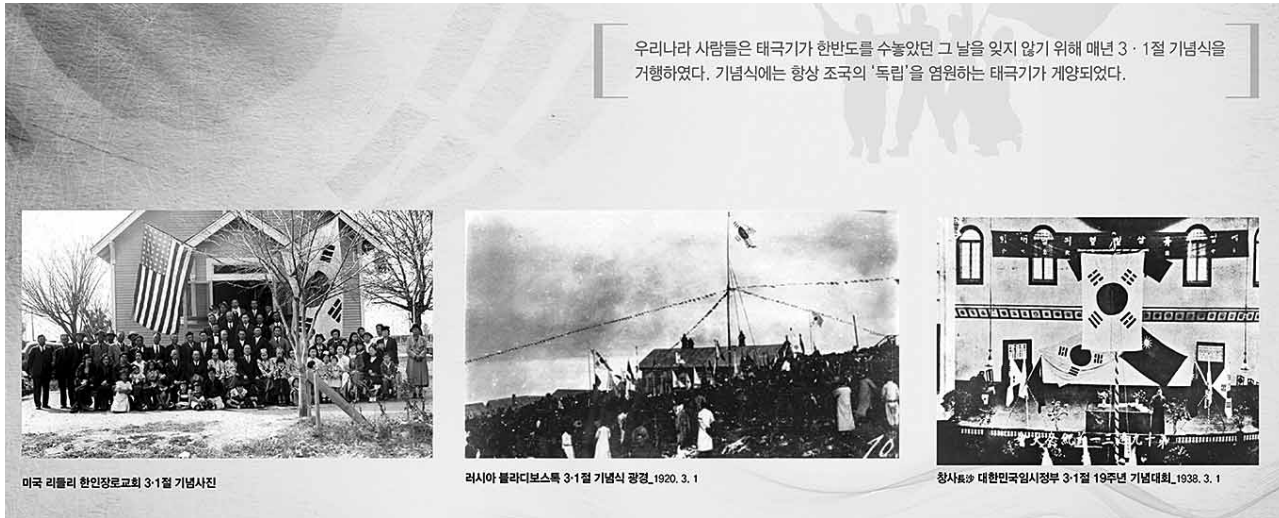
한편 나인숙(금호중앙여고 교사, 서영(송원대 실용예술과 교수), 오윤환(광주시립무용단 지도위원)씨가 광주무용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남성은 박주희·조소희, 사무국장은 김은영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태극기,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나부끼다’ 3·1절 기록사진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태극기는 우리 민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존재다. 1882년 박영효가 만든 이래 130년 동안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제98주년 3·1절을 기념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태극기,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나부끼다’ 기록사진 전시를 3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조국’과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된 태극기를 살펴본다. 국내외 3·1운동, 임시정부, 독립군과 태



극기에 관한 기록사진 33점을 패널로 제작해 선보인다.

1919년 3월13일 해외에서 처음 전개된 3·1운동이었던 만주 퉁정 서전별 현장을 비롯해 미국 리틀리 한인장로교회,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3·1절 기

념식 등 세계 곳곳에서 나부낀 태극기를 만날 수 있다.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행사, 1945년 영광 광복절 축하행사 등 역사적 순간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태극기 사진도 전시한다.

또한 태극기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태

극기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전시간 상시 진행하며, 3·1절(3월1일)에는 태극기 손수건 스티실 하기, ‘태극기와 우리 독도 만들기’ 등을 추가 운영한다. 문의 061-334-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신달자 시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자문

24일 출범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문학계 원로인 시인 신달자(사진)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강형철(62) 송의여대 교수가 뽑혔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계 인사들로 꾸려진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책위원회에는 김인숙 소설가,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 문학출판계 인사 등 15명이 위촉됐으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라 꾸려진 정



책위원회는 향후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문학진흥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자문한다. 또한 지난해 부지 공과 과정에서 추진을 중단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대한 자문에도 응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정부와 문학계 간의 정책 민관 협력 기반(거버넌스)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사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 데제올라

CHANNEL A **매주 금요일 밤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